



광주광역시 북구 송림동사무소

이승연 사회복지사

1 지난 호 칭찬사회복지사 전선자 선생님(빛고을정신요양원)께서 21호 칭찬사회복지사로 선생님을 추천해주셨는데 간단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온갖 혼신의 힘을 다하고, 가진 것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나눔의 정을 나누며 생활하는 훌륭한 주위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추천된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이 앞섭니다.

2 전선자 사회복지사께서는 선생님을 '매사에 자신감을 가지고 긍정적인 사고와 확실한 비전을 지닌 사회복지사의 이상적인 모델'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처음 사회복지사가 되기

로 결심하신 때는 언제이고,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사회복지라는 분야에 대하여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진학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젊은 혈기로 서울에 상경하여 이일저일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망막박리라는 병이 찾아와 실명의 위기에 까지 처하게 되었고, 그런 와중에 저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면 무언가 꼭 의미 있는 일을 하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도움으로 결국 3번의 수술을 거쳐 나왔지요. 그 후 가톨릭 신자가 되어 전문대학 사회복지과에 진학해 졸업 후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및 노인복지담당 사회복지사로 약 1년 반 정도 일했

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들이 많은데요, 비행청소년들을 위해 잠재력개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모 기업에서 수 천만 원을 지원받아 운영하였고, 청소년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일기 시작할 때 좀 더 체계적인 자원봉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환경운동연합, 대학 교수님들과 연합하여 청소년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 등 여러 가지가 기억에 남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휴일도 없이 일을 하였고 내 자신이 전문적인 지식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그래서 4년제 대학에 편입하여 공부하고 졸업 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채1기로 합격하여 현재까지 왔지요.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지역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을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접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어떤 비램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또한 반대로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주세요.

사회복지의 가장 일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간혹 사회복지사로서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비애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부자세대에서 형편이 여의치 않아 자녀들을 아동생활시설 등에 보호 의뢰를 하려고 찾아온 부모와 자녀들을 볼 때입니다. 부모는 눈물을 글썽이고 있고 아이들은 그 이유를 아는지 모르는지 민원실 앞을 뛰어다니며 장난치는 모습, 내가 형편만 된다면 시설입소를 의뢰한 부모의 사정이 나아질 때까지 맡아서 키워 주고 싶을 정도로 마음이 아파요.

사회적인 제도가 완비되어 이렇게 시설에 맡겨지는 아이들이 없이 편부, 편모일지라도 부모들과 함께 자녀들이 자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가정에 더욱 정성을 쏟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던 세대가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현 시점의 어느 한 부분이 기준을 초과할 때 천편일률적으로 보호를 중지하여야 할 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의 의미와 가치의 한계를 느낍니다.

4 사회복지사로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와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였는지 궁금합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현실적이고 즉각적인 도움을 요구하고 필요로 하지만, 그 분들의 생활조건이 법의 테두리에 맞아야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간혹 어려움과 마찰이 생깁니다. 폭언을 하는 것은 태반이고, 민원실에 있는 물건을 던지기도 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역에서는 정신질환의 병력이 있는 사람이 직원을 구타하여 병원에 입원한 사례도 있습니다.

저희도 어려운 분들의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사회복지사의 존재 이유이구요. 다만 공무원의 신분으로 법적 기준을 지켜야하는 의무가 있다는 걸 이해해주셨으면 하지만 이해되지 못하고 물리적으로 되돌아올 때 어렵고 사회복지사로서 비애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보호를 받다가 보호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보호중지가 될 때, 계속 보호를 연장하기 위하여 역지를 부리지도 않고 정말 그동안 고마웠으며, 선생님이 도움을 주어 우리 세대가 살 수 있었다며 고마워할 때 정말 사회복지사로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또 법과 제도의 틀에서는 큰 도움을 드리지는 못하였지만 후원자를 개발하여 후원을 맺어드렸을 때 또한 보람을 느낍니다.

5 앞으로 사회복지사로서, 개인적으로 꼭 이루었으면 하는 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후원자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과 결연을 맺는 일에 정성을 기울일 것입니다. 사회복지의 우리 이웃에 대한 관심이기에 현행 제도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 전체가 나설 문제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대학원에 진학하여 사회복지 석·박사과정을 밟아 좀 더 체계적인 이론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6 마지막으로 22호 칭찬사회복지사를 추천해주시고, 그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전라북도 정읍시 시기3동에 근무하는 이동주 사회복지사를 추천합니다.

항상 민원인들을 대할 때 친절하고, 민원인집을 방문할 때도 자기 돈을 털어서라도 쌀 한 포대 과자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방문하는 인정이 넘치는 마음이 따뜻한 사회복지사입니다.☺